

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연대 강화

전북·세종·강원·제주 등 교육자치 실무협 임사회 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1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사회'에 참여, 세종·강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특례를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0~21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사회'에 참여, 세종·강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특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사회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법 교육 분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추진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추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할 교육특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전북·세종·강원·제주교육청은 지난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꾸렸다.

올해 1월 전주에 이어 이번에 세종

에서 만난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을 통한 교육 분야 제도개선 과제와 부처 대응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할 안건 등을 모색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특별법은 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령인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공동 추진 과제와 관련 부처 활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교총 박정현 회장 등 제39대 회장단과 일부 시도 교총 회장 등 100여 명은 지난 20일 서거석 교육감을 찾아 대회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총 회장단, 당선 후 첫 행보로 전북 방문

서거석 교육감에 "교원 보호 노력 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9대 회장단은 당선 후 첫 행보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했다.

한국교총 박정현 회장(인천 부원여중)과 조은경 부회장(전주근영중 수석교사) 등 제39대 회장단과 일부 시도 교총 회장 등 100여 명은 지난 20일 서거석 교육감을 찾아, "교사가 가르치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정현 회장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증가로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고충받고 있으며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전주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대처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미약하지만, 해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북교육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접근, 교육 기관 발굴 등에 노력해 준다면, 중앙에서도 관련 법령과 제도 마련 촉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함으로써 학교에서 정상적

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세 선지급 및 100% 지원을 결정한 전북교육청 사례가 귀감이 되고 있다"며 "선생님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 노력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노조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총과 노조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통이 이뤄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제39대 회장선거는 전 회원 온라인투표로 진행, 개표결과 기호 1번 박정현 회장이 38.08%를 득표해 당선됐다. 또 라임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문태혁 경기 효원초 교장(수석부회장) △조은경 전주 근영중 수석교사 △조영호 충남 부여 교총 교장 △송광섭 경남 노포초 교사 △김태영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 등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28일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오는 28~29일 이틀간 체육관에서 '제13회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연맹 소속 선수와 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시력에 따라 B1·B2·B3·오픈(남녀 단식)으로 나눠 예선전(리그전)과 준결승(토너먼트), 결승으로 치러진다.

한국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진자(특수교육과) 교수는 "일반 테니스장보다 약 5m 짧은 코트에서 진행되는 시각장애인 테니스는 구슬이 들어있는 직경 9cm 크기의 스피지 공의 소리를 듣고 경기를 한다"며 "일반 테니스는 공이 바닥에 한 번 튀기는 것이 허용되지만 시각장애인 테니스는 시력 정도에 따라 B1과 B2는 3번 이내, B3는 2번 이내, 오픈은 1번 이내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개최식은 라중일 한국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회장과 유희태 원주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2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올 첫 교육공무직원 합격자 발표

늘봄실무사 168명·교육복지조성자 8명·교육복지사 47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23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종별 최종합격자는 늘봄실무사 168명, 교육복지조성자 8명, 교육복지사 47명 등이다.

이번 채용시험에는 3개 직종 2,567명

이 지원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사 등록은 오는 24일 이후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편 이번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7월 1일 이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며, 늘봄학교 행정업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을 담당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늘봄실무사, 교육복지업무담당자 채용으로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 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초등교감·교사 24명, 중등교사 25명 등 총 49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별 최종 합격자는 초등교감 1명, 초등교사 23명, 중등교사 25명 등 총 49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종 선발된 교육전문직원은 일반분야와 P, E, 테크, 화학, 상업, 체육 등으로 전문분야에서 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2024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최종

합격자들은 다음과 같다.

- ◇초등 교감 1명 ▲구인수(덕과초)
- ◇초등 교사 23명 ▲김태현(전주중앙초) ▲남은아(전주이중초) ▲김윤경(군산월명초) ▲노선희(성산초) ▲조성환(군산미정초) ▲강현숙(남산초) ▲윤다정(음안초) ▲임희(이리영등초) ▲임희정(이리영등초) ▲최선우(황등초) ▲최정봉(금마초) ▲강현(정우초) ▲김지왕(태인초) ▲이승원(정음초) ▲이재영(교양초) ▲홍지선(감곡초) ▲신은경(치문초) ▲유경수(부귀초) ▲김경원(임실기림초) ▲서영배(영만초) ▲곽철중(부안동초) ▲최의진(이

- 리모현초) ▲신재우(영만초)
- ◇중등 교사 25명 ▲양혜진(전주서곡중) ▲조은정(전주오송중) ▲박선정(전주온빛중) ▲황기열(전주중앙중) ▲나정은(양현고) ▲도정철(전북여고) ▲정정희(전주근영여고) ▲김치연(전주생명과학고) ▲이지연(익산부송중) ▲최화정(익산부천중) ▲임대영(황등중) ▲이지은(소성중) ▲서승열(정읍제일고) ▲최성민(정주고) ▲최준호(한국경마축산고) ▲김승영(김제중앙중) ▲김지영(산서고) ▲이재환(영선중) ▲김재강(부안여고) ▲박지훈(전주술대고) ▲이재현(전주상업정보고) ▲오상민(김제고) ▲윤용호(고산고) ▲이성구(한국게임과학고) ▲박현(화산중)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입실군 지역선도 창업지원사업 창업경진대회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0일 '2024 입실군 지역선도 창업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주기전대학에서 주관한 창업관련 교육 8시간(창업 기본 및 특화 교육 60시간, 그룹멘토링 21시간)을 진행했다. 교육의 80% 이상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창업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창업자들의 창업아이템 우수성, 창업계획의 준비성, 성장가능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한 후 창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7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최종 대상자들은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선발된 예비창업자들은 반려견 친화 숲, 전래놀이, 요식업, 문화 공간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업종의 창업을 준비, 향후 창업비, 멘토링 등 창업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산학협력단 조덕현 단장은 "교육생들이 이번 창업지원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다듬고 발전시켜 입실군의 문화와 경제활동을 선도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창업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군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참여의지·비전 공유

전주기전대, RIS 사업

참여 설명회 개최

RIS대학교육혁신본부와

협력 기반 교육수준 향상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20일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 부총장 및 교직원들을 비롯해 RIS대학교육혁신본부 본부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참여에 대한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주기전대학은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북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운영에 대한 참여의지와 비전을 공유했다.

이에 전주기전대학은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인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 JST 공유대학 융합제품 및 교육과정 운영, 공유대학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한 공간 구축 및 실습 기자재 지원을 통해 대학교육역



전주기전대학은 지난 20일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RIS대학교육혁신본부와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조덕현 부총장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들을

양성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대학교육혁신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교육청, 2024년도 교육행정자료 발간

학교 현황·일람표 등 담아

전북자치교육청 누리집에 탑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 교육행정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교육행정자료는 지난 4월 1일 기준 도내 학교 현황 및 각종 지정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학교 일람표 등 업무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수록됐다.

이 자료에는 공·사립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총 1,243개교, 1만1,001학급, 19만5,991명의 학생이 있다.

또 전체 교원수는 1만9,172명, 교육전문직원은 347명, 행정직원은 4,389명이다. /장은성 기자

청년창업가 육성...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 출범식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열려

시제품 제작·지식재산권 출원

클라우드 펀딩 등 후속 지원도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2024년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익산청년시장,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창업지원계 관계자를 비롯해 창업동아리 20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교내 프라임관에서 열렸다.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가 지원하고, 원광대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자료는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e.go.kr)에 탑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행정자료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최종 20개 팀의 창업동아리를 선발했으며, 선정된 창업동아리는 분야별 멘토와 함께 최적화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출원,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업 프로세스 이해와 실무 기회를 얻고, 창업 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모델 구성을 위한 교육비 등도 지원된다.

특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아이템은 모의 클라우드 펀딩과 시제품 전시회를 거쳐 우수동아리를 선발하고, 실전 클라우드 펀딩 기회 등 후속 지원도 이뤄진다.

김유순 창업지원단장은 "이 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의 꿈과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